

***공동주택 평형별 주부들의 주거관에 관한 조사연구

- 20평형대~50평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memakers' Housing Notion according to Unit Size in Apartment

- focus on 20pyung~50pyung -

장경수* / Chang, Kyung-Soo

김경순**/ Kim, Kyung-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ovide basic data for homemakers' housing notion according to unit size in apart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questionnaires that concerning about middle class homemakers whom they lived in Bunda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search on the homemakers' general quality, 20pyung unit size was alike 30pyung unit size and 40pyung unit size was similar to 50pyung unit size.

2) Homemakers' perception according to unit size in apartment was various; (a) 20pyung·30pyung unit size-effective household space for husbands' participation, more sports facilities, parking lot space etc. (b) 40pyung·50pyung unit size-homemakers' individual room, ordering and variable unit plan etc.

3) In research on the homemakers' needs, each of unit size was analogous to storage, common facility, new design and new housing form etc.

키워드 : 공동주택, 평형, 주부, 주거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정이 여성에게 미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의식의 변화, 출산력의 감소, 소가족화 및 내구소비재의 보급 등에 따른 육아 및 가사노동의 경감, 그리고 소비성향의 변화와 사교육비의 증가에 따른 추가수입의 욕구 증대 등에 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유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기실현을 위한 취미활동, 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확장, 육아 휴직 제

도, 시간제 취업기회의 확대, 소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 변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가족 소득 감소의 예방 또는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에 대한 욕구 증대 등등의 이유에 근거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자아실현과 가정관리의 이중 노력 부담은 여성에게 가중한 노동이 되므로 주부 중심의 편리한 주택이 선호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공간은 여성의 가정생활의 여러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연구결과¹⁾에서도 여성의 취업이 주택내부의 특성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므로 여성과 관련된 사회환경 변화(가정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등)에 따른 주거관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중산층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앞으로 전개될 주부들의 사회진출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주택 계획방향의 기초자료를

* 정희원, 김포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동해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¹⁾ 이 연구는 2003년도 김포대학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1)김경미, 미래공동주택 설계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6, p.71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주거관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환경변화에 대한 제반이론을 정리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일반적 특성 및 주의식을 파악한다.

셋째,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주거환경(새로운 디자인, 시설, 서비스, 주택형)에 대한 주요구를 평형별로 파악한다.

(2) 연구방법

조사대상 단지는 경기도 분당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20평-50평형에 거주하는 가구를 임의로 표집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500세대 이상인 단지 규모 내에 각종 생활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 공원, 녹지시설, 체육시설 등이 갖춰진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아파트 개요

평형대	아파트명	분양면적(평)	배부수	회수수	회수율(%)	유용 설문지수
20평형	P, H, C	22, 24, 29	200	175	87.7	164
30평형	H, C	32, 33, 37	200	170	85.0	161
40평형	S, P	43, 45, 48	200	190	95.0	182
50평형	C, S	50, 55	200	150	75.0	141

또 '분당주민은 월 평균소득이 159만 5천원으로 전국1위라는 집계는 국민 연금관리공단이 과세자료,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확대 대상자의 지역별 신고권장소득을 선정한 결과치'의 자료²⁾로 중산층의 객관적인 변수인 소득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중산층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영역		설문항목	
조사대상 가구특성	개인특성	연령, 학력, 소득, 가족구성, 직업	
	주거특성	거주기간, 주택규모, 소유형태	
생활특성	현재경험하고 있는 생활특성	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의 가장 힘든 일 · 남편의 가사분담 · 가사도우미
		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공간크기, 관심도, 중요도 · 단위 주호에 대한 의식 · 주동 및 단지 내 공간 · 주택의 특성변화
주생활 행태	앞으로 원하는 주생활 행태	주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공간 · 시설, 지원서비스, 새로운 디자인 및 시설 · 새로운 주택형

조사방법은 문헌 및 기존연구, 신문, 인터넷 등을 토대로 연

2)경향신문, 199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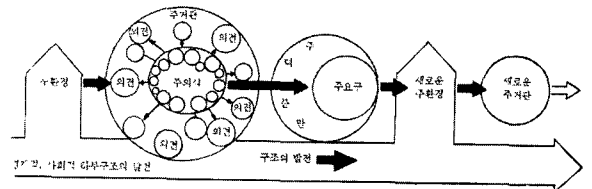
구자가 작성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02년 9월 24일-10월 6일 기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800부를 배포하여 712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유효자료는 648부였다.

설문조사결과³⁾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ANOVA(분산)분석, Duncan사후검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3. 용어설명

(1) 주거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주거관은 주생활 본연의 형태에 대한 견해 또는 이념에 의거한 주택형식에 관한 견해로써 남녀노소, 직업, 학력, 빈부의 차, 생활의 경력 등 사람이 처해있는 사회적 계층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다. 주거관이 형성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 1단계는 주거관의 잠재적인 마음상태로 구체적인 형을 갖지 않는 주의식 단계이고, 2단계는 주의식이 의견의 형태로 표현되는 단계인 주의견 단계이고, 3단계는 단편적인 주의견이 계통적으로 묶여나온 주택이상 단계, 4단계는 주택이상의 단계에서 형성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단계인 주요구의 단계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주의식과 주요구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분석하였고 주거관의 발전 단계는 <그림 1>⁵⁾과 같다.



<그림 1> 주거관의 발전단계(출처:扇田 信, 住生活學, 1978) 재인용

(2) 중산층

중산층에 관련된 용어는 중간층, 중간계층, 중류층, 중간계급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각 용어의 정의나 개념규정도 명확치 않다.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란 궁극적으로 '삶의 기회'를 적절히 배분 받고 이를 누리고 있는 계층이며, 삶의 기회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의식과 이를 누리고 있는 이를 가능케 해주는 경제적 여건의 구비라는 점이다. 즉 중산층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중산층을 구분해내는 객관적

3)설문조사 결과 직업은 주부65%(420), 교사7.6%(49), 사무직3.4%(22), 자영업2.9%(19), 기타14.4%(93) 등으로 취업주부는 주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4)안옥희 외2인,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2001, pp.49-50

5)op.cit., p.49

변수인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와 교육수준, 직업, 주택과 같은 사회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인 응답자 스스로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평가하는 주관적 귀속의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중산층의 기준변수 중 소득은 가장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조건에 의해 분류된 각 집단들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0분위 분포에서 상위 20%와 하위 49%를 제외한 계층을 중산층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2-2.5배 이상 계층을 경제적 중산층으로 하기도 한다.⁶⁾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객관적인 변수인 소득이라는 경제적 변수를 중산층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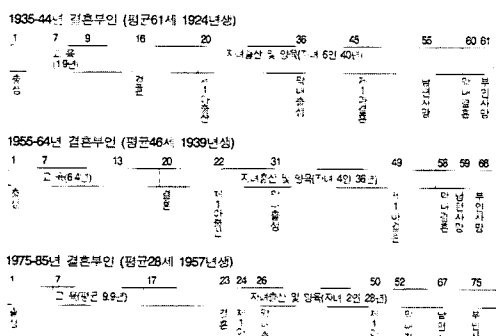
2. 여성관련 사회환경의 변화

2.1. 전반적인 변화동향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화·공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도 가정생활에 몇 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정생활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는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평균 가족원수의 축소, 가족세대의 단순화 그리고 친족범위의 축소 및 친족유대의 약화, 가족안정성의 약화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 가족주기의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이 20세기 초반(1940년 이전) 여성과 후반 여성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평균자녀수가 5인에서 2인 이하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평균수명이 50에서 80세로 대폭 연장되었다.⁷⁾ 생애주기 변화과정은 <그림 2>⁸⁾와 같다.



<그림 2> 1985년 현재 기준 여성의 가족생활주기
(출처: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공세권의 4인 공저, 1987, p.155)

가족기능의 변화는 소비기능의 강화, 자녀양육 기능강화, 정

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강화, 가사노동의 기계화 진행 등의 특징을 가진다.

(2) 경제생활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노동시장의 수요면에서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 관련직 등이 늘어나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고등 교육을 받은 고급 여성 인력이 증가하였고 출산을 저하와 가전제품의 발달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30대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취업을 여성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소수 자녀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단축 및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인한 기혼 여성들의 시간적 여유, 소비생활 수준 상승에 따라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적 필요성의 증대, 그리고 지속적인 노동력 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나타난 현상⁹⁾이라 한다.

(3) 사회생활의 변화

사회생활 영역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제도교육에의 참여를 제외하고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으나 여성들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 일도 집에서보다는 집밖의 상품화된 서비스 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취미나 여가활동 역시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감에 따라 외부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 직업생활에 종사하거나 전업주부에 관계없이 자아발전을 위한 공부를 원하며,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한다. 특별히 일을 갖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이 끝난 시간이나 가사노동의 중간 혹은 자신을 위한 개인생활을 유지할 위한 문화교실, 노래교실, 꽃꽂이 교실, 서예교실, 외국어교실, 헬스, 골프, 요리교실, 체조교실 등을 다니고, 이밖에도 친구를 만나 한담을 하기도 하고 함께 쇼핑을 하며, 식사도 즐기고 학교동창, 동기 모임, 이웃 모임에도 나가며, 일로서가 아니라 자기표출 의지로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활발히 하는 여성들도 많다¹⁰⁾고 한다.

2.2. 미래사회의 여성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산업으로의 전환은 다음세기의 특징을 3F(feeling, female, fiction)로 집약하면서 “여성의 세기”를 전망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미래 여성의 가정 생활의 부담은

6) 문숙재 외 2인,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2000, pp.45-47

7)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통계연보, 1999, p.12

8) 김미혜, '여성의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센터, 1999, p.48 재인용

9)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문음사, 2000, p.245

10) 심영주 외 1인, 여성의 관점에서 본 공유공간의 효율성, 밀레니움 커뮤니케이션 센터,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137

줄어들어 사회참여의 길이 넓어질 것이며, 노동의 소프트화로 인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창출하여 여성 인력 활용이 증가할 것¹¹⁾이라는 전망이다.

부부관계는 가부장적 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노부부관계에서도 부부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부부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의사결정에 부부가 가정 일에 대해 상호 의논하고 공동으로 최종 결정을 하며, 가사노동의 분담에 있어서는 남편이 도와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여성도 가정의 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 및 경제활동 면에서 보면¹²⁾ 첫째, 여성이 취업과 양육을 양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출생물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중산층 계급의 인구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녀의 교육 뿐 아니라 자신의 교육 등으로 평생교육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취미활동,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더욱더 자녀출산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직장가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잘 발달된 통신망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와 구매가 가능하고 직장의 일을 집에서 처리하여 직장으로 보낼 수 있어서 모든 일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기대되는 역할을 사적인 가정내의 역할과 공적인 활동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¹³⁾

<표 3> 미래사회의 여성의 역할비교

사적인 역할	공적인 역할
가족구성원의 노동력 재생산 기능	생산자로서의 경제활동 참여
차세대의 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경제질서 창조자로 경제활동 참여
소비자로서 경제활동 참여 기능	정치 및 자원활동 참여

3. 중산층주부의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관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여 <표 4><표 5>와 같다. 20평형대에서 30대 이하가 69.5%로 나타났고 40평형대·50평형대에서는 40대 이상이 63.2%, 76.6%로 각각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 평형에서 전반적으로 대졸이상 학력으로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수도 전체 평형대에서 4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20평형대, 30평형대에서는

11)윤택림, 미래사회에서의 여성과 삶의 질,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p.3

12)임정빈 외1인, 성역할과 여성:여성학 강의, 학지사, 1997, pp.374-378

13)오성환, 여성이 미래를 지배한다, 도서출판 두남, 1994, p.15

<표 4>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 빈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부연령		주부학력	
	30대 이하	4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20평형	114(69.5)	50(30.5)	59(36.0)	105(64.0)
30평형	93(57.8)	68(42.2)	28(17.4)	133(82.6)
40평형	67(36.8)	115(63.2)	41(22.5)	141(77.5)
50평형	33(23.4)	108(76.6)	31(22.0)	110(78.0)
χ^2	99.231 [*]		121.457 [*]	

* P<.05

201-300만원이 53.0%, 42.5%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40평형대·50평형대에서는 301만원 이상이 각각 53.8%, 61.0%로 높게 나타나 주택의 규모에 따라 소득의 다소가 병행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2) 빈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수		소득		
	3인 이하	4인 이상	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20평형	45(27.4)	119(72.6)	50(30.5)	87(53.0)	27(16.5)
30평형	31(19.3)	130(80.7)	35(21.7)	68(42.3)	58(36.0)
40평형	20(11.0)	162(89.0)	11(6.1)	73(40.1)	98(53.8)
50평형	20(14.2)	121(85.8)	6(4.3)	49(34.8)	86(61.0)
χ^2	145.636 [*]		47.737 [*]		

* P<.05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은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여 <표 6>와 같다. 거주기간은 전체평형대에서 대체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평형대에서는 2년 미만이 36.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주택의 소유형태는 30·40·50평형대에서는 자가에 대한 비율이 각각 76.4%, 79.1%, 83.0% 등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평형대에서는 전세 및 월세 53.7%로 자가소유 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주거특성 빈도(%)

	주거특성				
	소유형태		거주기간		
	자가	전·월세	2년 미만	3-4년	5년 이상
20평형	76(46.3)	88(53.7)	60(36.6)	34(20.7)	70(42.7)
30평형	123(76.4)	38(23.6)	37(23.1)	51(31.9)	72(45.0)
40평형	144(79.1)	38(20.9)	42(23.4)	49(27.4)	88(49.2)
50평형	117(83.0)	24(17.0)	33(23.4)	34(24.1)	74(52.5)
χ^2	94.116 [*]		132.968 [*]		

* P<.05

3.2. 생활실태

주부의 가정생활의 변화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부들의 가사노동 중 가장 힘든 일, 남편의 가사분담 및 도와주는 가사일, 가사보조자 등의 실태를 교차 분석하였다.

주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식사준비, 자녀 돌보기, 청소 등으로 나타났는데, 평형별 특징은 <표 7>과 같다. 즉 20·30평형대에서는 식사준비가 가장 힘든 일로 나타났고, 40·50평형대에서는 청소가 제일 힘든 일로 파악되었다.

<표 7> 주부들의 가장 힘든 일

빈도(%)

	가장 힘든 일		
	식사준비	자녀 돌보기	청소
20평형	74(36.3)	35(22.7)	31(16.3)
30평형	50(24.5)	43(27.9)	45(23.7)
40평형	42(20.6)	48(31.2)	64(33.7)
50평형	38(18.6)	28(18.2)	50(26.3)
χ^2	99.038*		

* P<.05

평상시 남편이 가사 분담 정도는 <표 8>과 같다. 전체 평형대에서 남편의 가사분담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평형대에서는 전혀 가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36.2%로 파악되었다.

<표 8>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

빈도(%)

	남편의 가사분담		
	남편과 나는 가사 일을 반반씩 한다	내가 주로 가사 일을 하고 남편은 가끔 한다	남편은 가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20평형	13(8.1)	110(68.8)	37(23.1)
30평형	9(18.8)	114(70.8)	37(23.0)
40평형	19(10.5)	109(60.2)	52(28.7)
50평형	7(5.0)	83(58.9)	51(36.2)
χ^2	32.125*		

* P<.05

다음으로 남편이 가사 일을 할 경우 가장 많이 하는 가사 일은 <표 9>과 같이 청소, 설거지, 이불 개고 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일

빈도(%)

	남편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청소	설거지	이불 개고 펴기
20평형	47(30.5)	20(13.0)	20(13.0)
30평형	41(27.5)	16(10.7)	8(5.4)
40평형	41(26.1)	28(17.8)	19(12.1)
50평형	22(17.3)	12(15.8)	22(17.3)
χ^2	98.249*		

* P<.05

주부의 가사 일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사도우미의 실태는 <표 10>와 같다. 대부분의 평형대에서 도우미 도움 없이 가사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며칠에 한 번씩, 일이 있을 때만 고용, 친정어머니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가사도우미

빈도(%)

	가사 도우미			
	없음	며칠에 한번씩 고용	일이 있을 때만 고용	친정어머니
20평형	141(87.6)	3(1.9)	3(1.9)	7(4.3)
30평형	120(75.5)	8(5.0)	10(6.3)	11(6.9)
40평형	110(62.1)	20(11.3)	20(11.3)	11(6.2)
50평형	62(44.3)	36(25.7)	12(8.6)	3(2.1)
χ^2	65.298*			

* P<.05

3.3. 주의식

주생활의식은 단위 주호의 각 단위공간에 대한 크기, 중요도 및 선호도 등에 대한 단위공간의 관심도를 조사하고 단위 주호

와 주동 및 단지로 나누어 각각의 전반적인 주생활 의식을 파악하였다. 또 주부들의 역할변화로 주택 내 영향을 미치는 생활특성변화와 아울러 주부의 사회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주택 내의 수납공간에 대한 선호 및 주방/식당에 대한 주생활 의식을 조사하였다.

(1) 단위공간의 크기에 대한 의식

단위공간 크기에 대한 크기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침실1과 주방/식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30평형대에서는 단위공간에 대해 「약간 <표 11> 단위공간의 크기에 의식

평균(표준편차)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평균	F값	P값
전용면적	1.93(1.80)	2.16(1.67)	2.52(1.69)	3.05(1.04)	2.43(1.90)	35.765	.217
거실	1.99(.78)	2.34(.68)	2.66(.66)	3.14(.92)	2.52(.86)	59.871	.786
침실1(안방)	2.20(.85)	2.74(.74)	2.95(.62)	3.24(.94)	2.77(.87)	46.946	.000*
침실2	1.81(.74)	2.25(1.56)	2.37(.78)	2.73(.81)	2.28(1.48)	9.574	.348
침실3	1.95(.98)	1.79(.68)	2.18(.80)	2.58(.83)	2.12(.87)	24.026	.202
주방/식당	1.81(.81)	2.12(.71)	2.31(.74)	2.47(.82)	2.17(.80)	20.139	.017
욕실	2.14(.69)	2.23(.67)	2.58(.70)	2.75(.86)	2.42(.77)	22.498	.224
다용도실	2.12(.90)	2.20(.81)	2.52(.68)	2.68(.91)	2.38(.85)	21.332	.263
현관	2.08(.77)	2.20(.68)	2.61(.73)	2.58(.83)	2.38(.79)	11.751	.155

* P<.05

작다」로 나타났고, 40·50평형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대체로 「적당하다」로 파악되었다. 전체 평균으로 비교하면 침실1(안방)의 크기에 대한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실, 욕실 순으로 파악되었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침실3의 크기에 대한 의식은 20평과 30평에서 같은 의식14)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방/식당에 크기에 대해서는 40평과 50평에서 같은 의식15)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단위공간의 관심도

단위 주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은 전체 평형대에서 거실(65.2%), 주방/식당(22.0%), 안방(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평형대에 대한 의식은 <표 11>과 같다.

<표 12> 단위 주호의 중요한 공간

빈도(%)

	단위 주호의 중요한 공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전체
거실	109(69.9)	103(69.1)	110(62.1)	75(59.1)	397(65.2)
침실1(안방)	9(5.8)	6(4.0)	14(7.9)	11(8.7)	40(6.6)
침실2	9(5.8)	3(2.0)	1(6)	4(3.1)	17(2.8)
침실3	2(1.3)	.	.	.	2(3)
주방/식당	24(15.4)	36(24.2)	42(23.7)	32(25.2)	134(22.0)
욕실	1(6)	.	6(3.4)	3(2.4)	10(1.6)
다용도실	.	.	3(1.7)	1(8)	4(7)
전면발코니	1(6)	.	.	1(8)	2(3)
χ^2	38.543*				

* P<.05

14)20평(1.95)과 30평(1.79)으로 묶였고, 40평(2.18), 50평(2.58)로 사후 검정되었다.
15)40평(2.31)과 50평(2.47)로 묶였고, 20평(1.81), 30평(2.12)로 검정되었다.

단위 공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은 전체 평형대에서 거실(48.9%), 주방/식당(20.2), 안방(16.6), 전면 발코니(6.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평형대에 대한 공간 선호 의식은 표 12와 같다. 특히 전면발코니에 대한 선호 비율은 낮지만, 앞으로 여성을 위한 단위 주호의 공간계획에 있어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3> 단위 주호의 좋아하는 공간 빈도(%)

	단위 주호의 좋아하는 공간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전체
거실	82(52.9)	86(56.2)	75(43.1)	55(43.3)	298(48.9)
침실1(안방)	15(9.7)	21(13.7)	39(22.4)	26(20.5)	101(16.6)
침실2	.	6(3.9)	6(3.4)	1(0.8)	13(2.1)
침실3	1(0.6)	.	3(1.7)	1(0.8)	5(0.8)
주방/식당	32(20.6)	26(17.0)	34(19.5)	31(24.4)	123(20.2)
욕실	1(0.6)	1(0.7)	.	5(3.9)	7(1.1)
전면발코니	13(8.4)	8(5.2)	11(6.3)	6(4.7)	38(6.2)
χ^2	47.966*				

* P<.05

(3) 단위 주호와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에 대한 의식

주부들의 주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태도를 단위 주호와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주생활 의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에 대한 7항목 중 2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평형대에서 '단지 내 수영장, 골프 관련 시설, 테니스장, 에어로빅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곳이 좋다' 및 '버려진 공간을 이용하여 헬스클럽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등의 항목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의 의식 평균(표준편차)

항 목	주택규모					평균	F값	P값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평균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공간은 실내처럼 아늑한 것이 좋다	3.37 (1.05)	3.64 (.89)	3.80 (.95)	3.88 (.94)	3.67 (.98)	8.518	.000*	
주동 내의 놀이공간을 위한 중간층이 필요하다	3.04 (1.17)	3.34 (1.02)	3.21 (1.09)	3.42 (1.12)	3.25 (1.10)	3.486	.016*	
지상주차는 어린이 사고 및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4.03 (.92)	3.99 (1.18)	3.90 (1.04)	4.01 (.95)	3.98 (1.03)	.605	.612	
매일 주차장 특정구간을 오전9시-오후 5시 차없는 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및 주인을 보호하는 곳이 좋다	3.87 (1.02)	3.93 (.89)	3.70 (1.06)	3.80 (1.01)	3.82 (1.00)	1.710	.164	
단지 내 수영장, 골프관련 시설, 테니스장, 에어로빅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것이 좋다	4.31 (.85)	4.34 (.76)	4.25 (.80)	4.15 (.93)	4.26 (.83)	1.514	.210	
관리사무소 등의 버려진 공간을 이용하여 헬스클럽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4.27 (.89)	4.29 (.82)	4.19 (.90)	4.29 (.80)	4.26 (.86)	.543	.653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여가 선용을 위한 문화교실이 있는 것이 좋다	3.77 (1.10)	3.92 (.91)	3.64 (1.13)	3.87 (.95)	3.79 (1.04)	2.398	.067	

* P<.05, ** P<.01

특히 30평형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고,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 공간은 실내처럼 아늑한 것이 좋다'와 '주동 내의 놀이공간을 위한 중간층이 필요하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50평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위 주호에 대한 17항목을 분산 분석을 하였는데 9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40·50평형대에서

<표 15> 단위 주호의 의식 평균(표준편차)

항 목	주택규모					평균	F값	P값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평균			
남편의 가사참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4.11 (.88)	4.13 (.79)	3.87 (.88)	3.98 (.82)	4.02 (.85)	3.507	.015*	
거실과 주방/식당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4.14 (.92)	4.08 (1.02)	3.97 (1.09)	4.21 (.92)	4.09 (1.00)	1.721	.161	
가사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나 가전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다.	3.38 (.92)	3.43 (.98)	3.56 (.92)	3.48 (.94)	3.47 (.94)	1.117	.341	
침단설비(무인전자 경비시스템, 방문객 화상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3.85 (.93)	3.92 (.95)	3.89 (.94)	3.93 (.92)	3.89 (.93)	.215	.886	
거실에서 주방이 보이지 않는 구조가 좋다.	3.89 (1.11)	3.91 (1.10)	4.05 (1.12)	4.39 (.85)	4.05 (1.07)	6.917	.000*	
욕조보다는 샤워부스를 두는 것이 공간 이용 상 좋다	3.64 (1.19)	3.78 (1.07)	3.88 (1.18)	3.99 (.96)	3.82 (1.12)	2.706	.045*	
안방을 줄여서라도 드레스룸이나 화장공간을 만들고 싶다.	3.48 (1.31)	3.72 (1.34)	3.70 (1.25)	4.21 (.92)	3.76 (1.25)	9.000	.000*	
주방과 식당은 가족들이 휴식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4.07 (.92)	4.16 (.94)	4.15 (.93)	4.22 (.79)	4.15 (.90)	.647	.585	
방의 수는 적더라도 방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3.55 (1.08)	3.51 (1.09)	3.54 (1.17)	3.51 (1.12)	3.53 (1.12)	.050	.985	
작더라도 수납전용의 방을 만들고 싶다	4.09 (.96)	4.28 (.91)	4.13 (.94)	4.37 (.81)	4.21 (.91)	3.046	.028*	
침실보다는 거실과 주방/식당 등의 공동공간이 넓은 것이 좋다	4.14 (.97)	4.30 (.84)	4.11 (.89)	4.20 (.86)	4.18 (.89)	1.470	.222	
향이 좋은 방이나 큰방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3.39 (1.18)	3.36 (1.15)	3.21 (1.08)	3.65 (1.08)	3.39 (1.13)	4.162	.006**	
취향대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주문설계나 가변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4.20 (.82)	4.26 (.77)	4.35 (.71)	4.41 (.69)	4.30 (.75)	2.429	.064	
재택 근무 가능도록 팩시밀리, 컴퓨터 통신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86 (.99)	4.11 (.82)	4.15 (.79)	4.17 (.83)	4.07 (.87)	4.468	.004**	
용변과 세면, 샤워를 불편없이 별도로 할 욕실은 2개가 필요하다	4.12 (1.02)	4.53 (.87)	4.60 (.66)	4.46 (.68)	4.43 (.84)	10.874	.000**	
독서, 가계부, 정리 등을 할 수 있는 주부 개인공간이 필요하다.	3.75 (1.16)	3.73 (1.09)	3.82 (1.01)	3.87 (1.06)	3.79 (1.08)	.531	.661	
다른 방의 크기를 줄여서라도 여부의 방서재, 취미실 등을 만들고 싶다	3.40 (1.13)	3.68 (1.01)	3.73 (1.01)	3.86 (1.05)	3.66 (1.06)	5.368	.001**	

* P<.05, ** P<.01

높은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의 수는 적더라도 방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항목에서는 20평형대에서 가장 높은 의식을 갖고 있었고, '침실보다는 거실과 주방/식당 등의 공동공간이 넓은 것이 좋다'는 항목은 30평형대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남편의 가사참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은 20·30평형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주택특성변화에 관한 의식

앞으로 주부들의 생활전반 및 주거공간에 영향을 줄 특성에

대한 의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하여 분산 분석하였다.

총 10문항 중 3문항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0평형대에서는 '부부간의 가사분담을 위해 효율적 가사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3.94)와 '외출 및 취업을 할 경우 자녀를 단지 내 탁아시설에 맡길 것이다'(3.55)로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이하의 주부(69.5%)가 거주하는 평형에서 가사분담 및 육아에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0평형대에서는 '단지 내 주민과 문화 및 친교생활의 증가로 주민 공동공간이 필요할 것이다'(3.79) 및 '자녀교육 및 자신의 평생교육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4.28)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주택의 특성변화에 관한 의식 평균(표준편차)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평균	F값	P값
자녀수의 감소로 여유시간이 증가하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3.77 (.84)	3.81 (.72)	3.75 (.86)	3.95 (1.28)	3.81 (.93)	1.363	.253
부부간의 가사분담을 위해 효율적인 가사공간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3.94 (.81)	3.93 (.82)	3.83 (.89)	3.88 (.80)	3.90 (.83)	.584	.625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의 기존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3.96 (.81)	3.94 (.74)	3.76 (.98)	4.00 (.91)	3.91 (.87)	2.372	.069
자아실현을 위한 취미 및 여가활동은 단지 내 문화센터를 이용할 것이다	3.66 (.93)	3.61 (.95)	3.56 (.97)	3.77 (1.04)	3.64 (.97)	1.349	.257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단지 내 상가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3.40 (1.06)	3.22 (1.00)	3.32 (1.01)	3.60 (1.04)	3.38 (1.03)	3.457	.016*
외출 및 취업을 할 경우 자녀를 단지 내 탁아시설에 맡길 것이다	3.55 (1.19)	3.32 (1.12)	3.32 (1.11)	3.50 (1.07)	3.42 (1.13)	1.641	.179
봉사 및 종교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위해 첨단설비가 필요할 것이다	2.98 (1.19)	3.31 (.96)	3.42 (1.05)	3.48 (1.04)	3.30 (1.08)	6.456	.000*
취업을 할 경우 노부모를 모시고 살 것이다	2.27 (.98)	2.28 (1.17)	2.40 (1.12)	2.76 (1.26)	2.42 (1.15)	5.375	.001*
단지 내 주민과 문화 및 친교생활의 증가로 주민 공동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3.72 (.84)	3.79 (.74)	3.67 (.91)	3.73 (.93)	3.72 (.86)	.584	.625
자녀의 교육 및 자신의 평생교육비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4.18 (.68)	4.28 (.59)	4.26 (.61)	4.22 (.67)	4.24 (.63)	.757	.519

* P<.05, ** P<.01

3.4. 주요구

주요구는 공동주거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주요계획요소, 시설, 서비스, 새로운 공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구를 조사하였다.

(1) 주요계획요소에 대한 요구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주부 자신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자아실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주호 내의 주요계획 요소인 수납공간(16)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수납공간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다중응답)는 전체 평형대에서 '부엌 근처에 식기나 식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팬트리)'

1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 근무형 주택개발연구, 1999.5, p.301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0평형에서는 안방 불박이장(50.7%)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30·40·50평형대에서는 옷방(드레스룸)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7>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옷방(드레스룸)	46(30.7)	90(56.3)	85(47.0)	87(64.4)
안방 불박이장	76(50.7)	56(35.0)	71(39.2)	42(31.1)
거실이나 현관 근처의 다목적 창고	43(28.7)	49(30.6)	52(28.7)	32(23.7)
부엌 근처에 식기나 식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팬트리)	91(60.7)	96(60.0)	119(65.7)	95(70.4)
아이방 불박이장	60(40.0)	63(39.4)	69(38.1)	42(31.1)
현관의 신발장 및 수납공간	48(32.0)	54(33.8)	47(26.0)	37(27.4)
앞 발코니의 창고	10(6.7)	12(7.5)	24(13.3)	9(6.7)
뒤 발코니의 창고	49(32.7)	29(18.1)	34(18.8)	19(14.1)
주택외부(지하실, 옥상 등)의 수납공간	3(2.0)	7(4.4)	5(2.8)	13(9.6)
욕실 근처에 속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22(14.7)	24(15.0)	37(20.4)	29(21.5)

(2) 시설에 대한요구17)

앞으로 전개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지할 수 있는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의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는 전체평형대에서 '실내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하다는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표 18> 공동시설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실내체육시설(헬스, 에어로빅)	101(63.1)	100(62.5)	103(56.9)	89(65.0)
탁아소(놀이방)	60(37.5)	62(38.8)	36(19.9)	27(19.7)
라운지(휴게실)	25(15.6)	19(11.9)	33(18.2)	23(16.8)
독서실	54(33.8)	62(38.8)	81(44.8)	48(35.0)
실내산책로	44(27.5)	40(25.0)	60(33.1)	39(28.5)
대형물건 보관 공동창고	21(13.1)	31(19.4)	34(18.8)	26(19.0)
공동작업실(취업 및 부업활동)	36(22.5)	34(21.3)	26(14.4)	24(17.5)
집회실/행사실(반사회&전시공간)	21(13.1)	26(16.3)	39(21.5)	36(26.3)

다음으로 20평형대에서는 탁아소(놀이방)(37.5%), 30·40·50평형대에서는 독서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평형대에서는 집회실/행사실(반사회 및 전시공간)에 대한 요구가 21.5%, 26.3%로 나타나 20·30평형대의 13.1%, 16.3%보다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즉 20·30평형대의 주부들의 주요구 및 40·50평형대의 요구가 각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의 상가 및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기를 원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는 <표 19>과 같다. 전체평형대에서 은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병원, 슈퍼마켓 등이었다.

17) 서울 마포구 도화1동 마포 삼성아파트 3층은 문화광장(40평 규모)이 설치되어 노래교실, 아동체육, 단학교실 등의 강좌도 마련돼 주민의 사고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중앙일보, 2000. 2.18, 25면) 등의 신문 및 인터넷 등을 참고자료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9>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은행	103(64.4)	87(54.4)	119(66.1)	90(65.7)
병원	103(64.4)	83(51.9)	114(63.3)	58(42.3)
슈퍼마켓	68(42.5)	65(40.6)	62(34.4)	68(49.6)
자녀학원	40(25.0)	52(32.5)	32(17.8)	42(30.7)
유치원	36(22.5)	43(26.9)	33(18.3)	20(14.6)
약국	27(16.9)	37(23.1)	33(18.3)	39(28.5)
헬스클럽	18(11.3)	24(15.0)	33(18.3)	19(13.9)

(3)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

전체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40평형대에서는 '레저 및 교양 강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30평형대에 거주하는 주부들은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50평형대에서는 '가사 일 보조서비스(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0>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레저 및 교양강좌서비스	103(65.6)	101(63.1)	118(64.8)	74(54.8)
물품보관·전달서비스	99(63.1)	88(55.0)	111(61.0)	81(60.0)
탁아서비스	98(62.4)	114(71.3)	96(52.7)	62(45.9)
간호서비스	86(54.8)	91(56.9)	105(57.7)	86(63.7)
가사 일 보조서비스	82(52.2)	84(52.5)	109(59.9)	98(72.6)

(4)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

조사대상자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건설회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 및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시설, 새로운 주택형 등을 조사하였다.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표 21>과 같다.

<표 21>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시스템 키친	132(82.5)	125(78.1)	133(73.1)	111(82.2)
수납공간(시스템수납장, 수납벽체 등)	119(74.4)	130(81.3)	140(76.9)	106(78.5)
인방에 불박이장 설치	67(41.9)	80(50.0)	89(48.9)	48(35.6)
대형발코니(조망, 운동, 식사공간)	49(30.6)	40(25.0)	51(28.0)	35(25.9)
욕실과 화장실 분리	45(28.1)	41(25.6)	49(26.9)	38(28.1)
공간의 가변이용(가변형 벽체)	37(23.1)	32(20.0)	54(29.7)	35(25.9)

20평형과 50평형대에서는 '효율적인 가사작업을 위한 시스템 키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30·40평형대에서는 '수납공간(시스템 수납장, 수납벽체 등)'에 대한 요구가 다수 근소한 차이로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공간의 가변이용(가변형 벽체)'에 대한 요구는 40·50평형대에서 요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요구는 20평형대에서는 '공동탁아시설'(57.0%)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했고, 30·40·50평형대에서는 '공동 공부방', '공동창고', '간호시설' 등의 순으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표 22>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공동탁아시설	90(57.0)	88(55.7)	77(42.8)	56(40.9)
공동창고	83(52.5)	84(53.2)	90(50.0)	79(57.7)
공동공부방	78(49.4)	102(64.6)	104(57.8)	84(61.3)
간호시설	76(48.1)	78(49.4)	102(56.7)	71(51.8)
공동근무실	64(40.5)	42(26.6)	52(28.9)	20(14.6)
공동세탁실	38(24.1)	42(26.6)	55(30.6)	40(29.2)

새로운 주택형에 대한 요구는 20·50평형대에서는 대체로 요구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특히 '소음저감형(내·외부 소음차단시설이 갖춰진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 30·40평형대도 서로 비슷한 요구를 나타냈는데 '내부의 수납공간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 요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3> 새로운 주택형에 대한 요구(다중응답)

빈도(%)

항 목	주택규모			
	20평형	30평형	40평형	50평형
소음저감형(내·외부 소음차단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110(68.3)	94(58.8)	113(62.1)	84(61.3)
내부수납공간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아파트	106(65.8)	108(67.5)	125(68.7)	83(60.6)
시스템 주방가구가 불박이된 가사노동이 편리하게 계획된 아파트	94(58.4)	82(51.3)	106(58.2)	79(57.7)
주차공간이 여유있게 되어 있는 아파트	55(34.2)	54(33.8)	73(40.1)	47(34.3)
입주자가 내부공간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아파트	24(14.9)	39(24.4)	39(21.4)	39(28.5)

5. 분석의 종합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동주택 단위평형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주거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주부연령은 20평형대와 30평형대에서 30대 이하로 나타났고, 40평형대와 50평형대에서는 40대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주부학력은 대부분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나타냈고, 가족수는 4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던 소득은 20평·30평형대에서는 201~300만원, 40평·50평형대에서는 301만원 이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였다. 주거특성 중 소유형태는 20평형대에서만 전·월세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평형대에서는 대부분이 자가의 소유형태로 파악되었다. 주택 거주기간은 전체 평형대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는 다음과 같다.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20평·30평형대에서는 식사준비, 40평·50평형대에서는 청소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전체 평형대에서 대체로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남편이 가사 일을 도운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전체 평형대에서 청소, 설거지, 이불 개고 펴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가사 일은 돕는 가사도우미는 대부분의 평형대에서 도움 없이 가사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며칠에 한번 씩, 일이 있을 때 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주의식은 각 평형대에 따라 다양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공간 크기에 대한 의식은 20·30평형대에서는 '약간 작다', 40·50평형대는 평균보다 높은 의식을 갖고 있었다. 또 단위공간의 중요도와 선호도에 대한 의식은 전체 평형대에서 거실, 주방/식당, 안방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에 대한 의식은 30평형대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형대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주호에 대한 의식은 40·50평형대에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20평형대는 '방의 수보다는 방을 크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30평형대에서는 넓은 가족 공동공간을 선호하였다. 특히 20·30평형대는 가사분담 및 남편의 가사참여를 위한 효율적인 가사공간 계획 등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넷째, 주요구는 각 평형대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형대에서 수납공간, 공동시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주택형 등의 항목에 대한 요구는 비슷했다. 다만 지원서비스의 경우 20평형대·30평형대에서는 레저 및 교양서비스,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했고, 40평형대·50평형대에서는 간호서비스 및 가사 일 보조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또 새로운 시설의 경우 20평형대는 공동탁아시설, 30·40·50평형대는 공동공부방, 공동창고, 간호시설 등에 대한 요구로 보아 각 평형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 결과 공동주택 평형별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부들의 주거관 중 특히 주의식 및 주요구는 경제적 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단위 주호, 주동 및 단지, 단위 평형 등에 대한 공동주택 계획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주호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고려한 가사노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사공간의 계획과 충분한 수납

공간의 확보 및 가족공동의 가사분담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시설, 설비계획 등이 요구된다.

둘째,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에는 전업주부의 사회참여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주부의 생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시설인 실내체육시설, 탁아소, 독서실 등의 시설이 필요하며, 지원서비스인 레저 및 교양강좌서비스, 탁아서비스, 가사 일 보조서비스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 외국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시설인 공동공부방, 공동창고, 간호시설 등의 포함된 융통성있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각 단위 평형에 대한 계획방향은 다음과 같다.

20평형대는 가사노동의 경감 및 가사분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사공간 및 육아와 주부를 중심으로 한 공간 및 시설, 서비스, 수납공간 등을 활용한 디자인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30평형대는 가족 및 주부개인을 중시한 단위 주호의 공간계획이 수행되어야 하며 주부의 여가생활을 극대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주동 및 단지 내공간의 공동시설이 고려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40평형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이므로 내부공간의 변화를 위한 공간계획 및 주부의 사회활동을 고려한 주동 및 단지 내의 공동시설 및 지원서비스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0평형대는 단위 주호의 자녀를 위한 공간계획 및 기능적인 수납공간이 계획되어야 하며, 주동 및 단지 내 공간은 주부의 자아실현 및 친교를 위한 공동시설의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향후 여성의 세기로 전망되는 시대에 여성의 삶의 변화를 고려한 공동주택의 개발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분당의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킨 계획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안옥희 외 2인,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pp.49-50, 2001
2. 문숙재 외 2인,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pp.45-47, 2000
3. 한국여성개발원, 1999 여성통계연보, p.12, 1999
4. 김동일 편저, 성의 사회학, 문음사, p.245, 2000
5. 심영주 외 1인, 여성의 관점에서 본 공유공간의 효율성, 밀레니움 커뮤니티 센터, 연세대학교 출판부, p.137, 2000
6. 윤택림,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질,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미래인력 연구센터, p.3, 1997
7. 임정빈 외 1인, 성역할과 여성; 여성학 강의, 학지사, pp.374-378, 1997
8. 오성환, 여성이 미래를 지배한다, 도서출판 두남, p15, 1994
9. 대한주택공사, 가사·생활일체 및 재택근무형 주택개발연구, 1995.
10. 원태연·정성원, 통계조사분석, SPSS아카데미, 2001
11. 김경미, 미래 공동주택 설계의 방향설정에 위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p.71, 1996
12. 중앙일보, 1998.10.29, 2000.2.8, 2000.2.12
13. 경향신문, 1999. 1.29

<접수 : 2003. 4. 29>